

2014년 1월 19일 주일예배 설교 김은관 목사 (Rev. Kim, Eunkwan)
낫고 싶으냐? 정말? (Do You Want to Get Well? Really?)
요 John 5:2-9, 14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가르침(teaching)과 선포(preaching), 그리고 치유(healing)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들어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역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기도 하셨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서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을 보면, 특히 치유에 관한 기사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치료도구를 쓰신 것도 아니고, 신비한 약을 쓰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손을 대시거나 말씀을 하시면, 어떤 병이라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이적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치유 기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지 병 고치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치유를 통해 가르치시고, 치유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에는 다 목적과 의미가 깃들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치유 기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새번역성경에는 ‘베드자다’라고 나오는데, ‘베데스다’는 고대 사본에 기록되어 있고, ‘베드자다’는 더 후대에 쓰여진 사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으로 발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발음이 잘 안되고 익숙하지 않아서 저는 이 시간에 편하게 ‘베데스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가끔씩 물이 움직이는데, 그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고 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싹 낫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베데스다라면 어떻게 한 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가끔씩 이 강대상이 흔들릴 때, 강대상을 제일 먼저 붙잡는 사람은 무슨 병이 있는지 싹 낫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그 소유권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교회의 것이냐? 우리가 소속된 UMC 교단 것이냐? 봉헌하신 분의 것이냐? 아니면 강대상을 제작한 회사의 것이냐? 그리고 아마도 이 근처는 각종 환자들로 북적될 겁니다. Black Friday 때처럼 번호표를 나누어주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줄을 지키기 위해 텐트를 치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마냥 기다릴 것입니다.

당시의 베데스다는 각종 병자들이 모여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물이 움직일 때는 먼저 들어가려고 난리에 난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언제 물이 움직이나 보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또는 ‘베드자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두 사람에게만 자비가 되자 나머지에겐 전혀 자비와는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치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극히 한정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각박함과 패배감과 절망감만 쌓여가는 곳입니다. 자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입니다. 바로 “무자비의 집”입니다.

베데스다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축소해 놓은 듯합니다. 온통 질병을 가지고 있듯이 다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크든 작든 간에 하나 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나 경쟁이 치열해서 남을 밟고 서야만 생존한다고 여기며, 서로 다투고 속이고 분열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이곳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교회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각박함과 패배감과 절망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초대교회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걸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느껴지고, 서로 사랑이 나누어지는 곳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럼에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이처럼 자비와 상관이 없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거의 평생을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병을 고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거기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오랜 병치레로 찌들고 지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낫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미 오랜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아셨는데, 왜 이처럼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병든 사람들 중에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속으로 그랬을지 모릅니다. ‘보면 모르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의 대답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7)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마치 자기의 안쓰러운 신세를 한탄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쉽지 않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려져 있다는 탄식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애기로 들립니다. 이젠 갈 곳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내 형편이 답답하다는 말로만 들립니다. 주님께서 뻔한 질문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 사람이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의 병을 즐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병이 분명 고통스럽지만, 그 병에서 낫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배려합니다. 무거운 것을 대신 들어주고, 빈자리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앉게 하고, 위로의 말과 안부의 말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환경을 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좀 불편해도 그것으로 인해 누리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 병을 즐기며 낫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혼내다 보면,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나 배 아파” 그러면 더 혼내지 않고, “괜찮아?” 하지 않습니까? 아픈 아이를 혼내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그것을 아니까 스스로 배가 아프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아프게 되고 혼날 때마다 배가 아픈 것 때문에 모면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할 때, 반은 자기가 아플려고 해서 아픈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몇 번 써먹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오는 동정의 눈빛 때문에 그 상황에 계속 머물기를 바라는 것이고,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도 어떤 경우는 그것 때문에 삶의 재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의 어느 집사님께 몇 가지 어려운 걱정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늘 그 걱정거리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며, 이리저리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걱정거리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으니 얼마나 기쁘고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들어오시는데, 잔뜩 찌푸린 얼굴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또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이젠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근심스런 얼굴을 하세요?” “아~ 걱정거리가 없어지니까, 살맛이 안 나네요. 그것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뭔가 다른 걱정거리가 있어야할 것 같아요” 참으로 걱정도 팔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낫고 싶은지 그래서 악함과 부족함과 불편함을 완전히 해결하고 싶은지 자신에게 진정으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낫고 싶으냐”는 질문은 정말 원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갈급함을 사슴의 목마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슴은 다혈질이고 열이 많기 때문에 쉽게 갈증을 느낍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다보니, 이러한 사슴의 목마름은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맹수가 언제 와서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도 물이 있으면 목숨을 내놓고 가서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맹수들은 이런 점을 알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 숨어 있다가 물을 마시고 있는 사슴을 뒤에서 기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이처럼 목숨을 내놓고 물을 찾는 사슴과 같은 갈증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이러한 사슴의 습성을 알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 42:1)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혈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혈떡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사모함이 있느냐는 뜻이 “낫고 싶으냐?”는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에 익숙해져 희망이 사그라진 상태에 놓여 있듯, 우리도 영적인 무기력에 익숙해져 낫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상태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은혜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부흥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 뭔가 사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직 망설이고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부흥’을 해야 하는데, 정말 부흥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믿음이 더 커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헌금도 더 내고 싶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봉사도 더 하고 싶으면 어떡하나? 선교를 떠나고 싶으면 어떡하나? 그게 고민이라 부흥이 꺼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낫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말씀이 “부흥하고 싶으냐?”로 들립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대답 또한 이렇게 들립니다. “주님, 은혜 받고 싶은데, 도대체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이것저것 걸리는 것도 많고, 아직 여유가 없어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정말 목회를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세상적인 재미가 뭔지를 조금 알았거든요. 과연 평생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영성 집회에서 세상의 재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재미를 맛보았습니다. 은혜 안에서의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 정말 목회가 하고 싶으냐?” 아마 저 뿐 아니라, 이민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는 질문일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음성이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들리는 겁니다. “너 정말 목회를 원하느냐?” 그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참, 답답하네요. 목회답게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할 형편이 안 되네요. 저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제가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 줄 아느냐?”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지금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정말?”

이 물음 속에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낫기를 정말 원한다.”

이제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걸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주님이 고쳐주시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 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가 38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떠나라”

진정한 치유가 있기 위해서는 그 병을 붙잡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떠나야 합니다. “걸어가거라”라고 하신 말씀은 계속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계속 걸어가지 않으면, 여기에 또 주저앉고 말기 때문입니다. 병이 나은 사람은 다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꿉니다. 38년 동안 병상에 있던 사람이 다시 그 병에 걸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습니까? 자리를 걸어서 떠나십시오. 그래야 치유 받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환경에서 떠나야 합니다. 뭔가 어떻게 되겠지 하며 막연하게 버티고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더 달라질 게 있겠어 하며 안주하려는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영혼의 병이 심각해져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오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프면 신호가 옵니다. 육신도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감기가 신호입니다. 사실 감기는 병이 아니고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라고 하죠.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밥맛이 없고, 호흡이 어렵고, 기침이 나서 밤에 잠을 잘 못자고, 열이 나고, 피곤합니다. 영혼의 감기 증세도 똑같습니다. 밥맛이 없듯이, 말씀이 잘 읽어지지 않고, 호흡이 잘 안되듯, 기도가 잘 안됩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듯,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열이 나고 짜증이 나듯, 불평불만 시기 분노가 생깁니다. 피곤해서 봉사도 싫고 교회 오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이런 영적 감기 증세가 있을 때, 내가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십시오. 그것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만 고치셨을까?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시점에서 궁금증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쭙봤습니다. “주님 왜 한 사람만 고쳐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할 만큼 했다.” “아! 그렇군요. 주님. 주님이 하실 만큼 충분히 하셨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는 것처럼 많은 치유의 사역을 하셨지만, 마지막 일주일 간은 거의 안 하셨고, 부활하신 다음 40 일을 거하셨지만 그동안에는 한 번도 치유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일 육신의 치유가 중요하다면, 주님께서서는 베데스다에 병원을 차리셔야 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병자들을 만나시며, 병을 고쳐주셔야 마땅합니다. 아니 승천하실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며 예수님같은 능력자들을 길러내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치유는 잠깐의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다 고쳐주어도, 진정 영혼의 치유를 얻는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면, 그도 자기의 영혼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모두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대개의 경우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고쳐 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따라 육신 뿐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고 회복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고침 받는다는 말은, 믿음이 있어야 육신의 병이 낫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들면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때로 병을 고치시며 믿음을 보시기도 하고, 또는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신 것은, 육신의 병보다 영혼이 먼저 온전해져야 육신의 치유도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침 받은 병자가 믿음을 보이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지도 않았습시다. 그의 대답을 볼 때, 그는 믿음이 없었지만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믿음이 있는지도 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모두 건강하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가 믿음이 없더라도 그의 육신과 함께 영혼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육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주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육신은 비록 병들고 약하지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입니까?

한국에 있을 때, 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은 40대 후반 한창 때 사고로 오른팔을 잃으셨습니다. 한동안은 적응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팔이 있는 것 같은 착각으로 손을 내밀다가 없는 것을 알고 얼마나 비관을 했는지, 왼손으로 전혀 해보지 않던 젓가락질을 하다가 젓가락을 내던져 버린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자기는 팔 하나 잃고도 이러는데, 주님은 아예 생명 자체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먼저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원래 쓰는 본명 대신 ‘유월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는 그 날부터 성경을 왼손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씨가 빠뜨리고, 어깨가 아프고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경을 쓰는 동안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성경을 다 쓰고 나니까 전에 오른손으로 쓰던 글씨보다 더 명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도소나 병원 같은 곳에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일입니다. 왼손으로 일일이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즐거운지,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잃은 나에게 양손으로 있던 때보다 더 크고 귀한 일을 왼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절대 육신의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좌절하거나 불편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건강이고, 치유입니다.

주님께서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가 고침받고 나서, 성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8년 된 병이 나았으니, 가보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해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는 그가 진정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치유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성전에 있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사실 이 말씀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육신의 치유보다는 영혼의 치유가 중요하고, 그보다는 영혼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깨끗이 치유되었으니,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게 하여라. 그 깨끗한 상태가 계속되도록 잘 관리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죄가 어떤 죄일까요? 그를 38년 동안 누워있게 만든 질병의 원인으로서는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죄는 그가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저지른 죄를 말합니다.

그가 주님께서 ‘났고 싶으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불평의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원망했고,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을 시기했습니다. 거기 누워있는 동안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이와 같은 마음으로 범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옛 습관을 걷어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의 굴레를 다시 뒤집어쓰지 말아야 합니다. 늘 주님 곁에 머무르며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새로이 집사 또는 권사로 세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분을 새로 주신 것도, 새 사역을 주신 것도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성전에 머물고, 더 온전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직분과 사역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욱 강건하고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Lectionary)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전 1:7-8)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하신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쳐보겠습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이제까지 익숙한 옛 모습을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제한적이고, 나태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교회가 38년 된 병자보다 더 심각한 63년 된 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부흥이 되겠지, 몇 사람만 잘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 버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났고 싶으냐? 정말?”

더 망설이지 말고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도와줄 사람 찾고, 해결될 환경 찾고, 합당한 시간을 찾는 안일하고 막연한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계속해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어진 사역과 직분에 더 열심을 다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키우고 영혼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다시 부흥하는 일에 모두가 하나되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가 그 병자에게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고, 진정한 회복과 참 건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부흥하고 싶으냐? 정말?”

기도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정말.

부흥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튼튼하게 세워주소서.

아멘.